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51호

#해병대 #극기훈련 #인권침해

"국가대표 해병대 훈련'은 심각한 인권 침해" ..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송서영 MBC기자

스포츠칼럼

과거로 역주행하는 한국 스포츠

정윤수 (스포츠평론가, 성공회대문화대학원 교수) / 매일노동뉴스

[안준철의 스포츠시선]

韓 스포츠,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

안준철 스포츠칼럼니스트 / 이데일리

문화연대 '운동(Exercise)으로 운동(Movement)하기'

'볼빨간' 언니들 "김연경보다 잘한 거예요"

서혜미, 박승화 한겨레 기자

'2023년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초등 1·2 체육 독립 편성... '국민 운동량' 늘린다

박광연 경향신문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국가대표 해병대 훈련은 심각한 인권 침해" ..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병대 극기 훈련을 받은 상황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선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와 문화연대 등 4개 단체는 오늘 오전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대로 해병대 극기훈련을 진행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국가대표 선수단의 정신력 강화를 명목으로 해병대 캠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선수들에 대한 강제적인 극기 훈련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돼야 한다"며 "경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징벌적인 훈련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야 함에도 대한체육회장 1인의 판단에 의한 획일적인 훈련으로 경기력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치고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소위 정신력 강화라는 목적으로 해병대로 차출되어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회장은 선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방기하고 반인권적 훈련을 실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과거로 역주행하는 한국 스포츠

지난 10월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비롯된 일이다.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30개, 은메달 33개, 동메달 40개로 4위를 차지했다. 4위라고 하지만 메달의 숫자도 그렇고 다른 나라와 격차나 종목별 성취도 등을 따져보면 하락세다. 종합 16위를 차지한 2021년 도쿄올림픽과 올해의 아시안게임을 세계 여러 나라의 상향 평준화와 연관시켜 보면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은 20권 안팎이 되리라는 예측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항저우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장에서 "우리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하는 훈련 방식, 시스템에 중점을 뒀 해외 사례들, 특히 경쟁국의 훈련 시스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동의한다.

그런데 "해병대 훈련" 얘기가 나왔다. 이기흥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촌하기 전에 2박3일 해병대 훈련을 할 계획이다. 나도 같이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두 달가량 흐른 뒤에 '정밀하고 분석하고 대응'한다던 대한체육회의 활동 중에서 눈에 두드러진 것은, 아직 해병대 훈련뿐이다.

국가대표에게 해병대 훈련이라니

해병대 훈련은 뛰어난 기량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에게 효과가 있는가. 단언컨대 전혀 없다. 성별·연령별·종목별 신체적 특성이 아주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극히 섬세한 차원에서 트레이닝하는 고도의 대표급 선수들에게 해병대 훈련은 신체적 측면에서 오히려 역효과다. 유연성과 리듬감이 필수적인 수영이나 체조 선수들에게 적을 기증해 강인하게 척결하는 것으로 구성된 해병대 훈련이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다면 정신력 강화는? 이 또한 무리가 있다. 정신력 강화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 국가대표급 선수라고 하면 그 종목에 있어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 수준으로 자신의 심리 상태를 컨트롤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엄연히 존재하고 진천선수촌은 물론이고 소속 팀이나 학교에서 첨단 스포츠과학과 심리·상담·코칭 등이 이뤄진다. 물론 이 모든 기관과 시설과 프로그램 역시 그 무엇인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설계된 것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모든 '과학적' 기관과 시설과 장비와 전문가와 프로그램을 제치고 해병대 훈련에 참가한다는 것은 대한체육회와 관련한 스포츠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무시하는 처사다.

고난도의 군사훈련 과정을 적절히 모방하고 재구성한 프로그램에서 '정신력 해이'라든지 '잘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복창하는 장면은 50년 전 20세기 중엽의 개도국 상태를 떠올리게 한다. 정확히 말해 그 시절에도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방식이 아닌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었기에 '정신력 강화' 일변도로 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다.

사실 항저우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전에 이미 낡고 진부하고 거친 조치들이 시행됐다. 장재근 국가대표선수촌장은 선수들의 '해이해진 정신'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그동안 강압적일 뿐만 아니라 신체 훈련에 효과도 없었던 새벽 산악구보를 부활시켰으며 외출이나 외박을 엄격히 통제하고 급기야 심야시간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내렸다. 해병대 훈련 캠프에 입소하기 이전부터 대표 선수들은 군인들처럼 엄격한 '내부반' 생활을 했다. 그랬는데 4위에 그쳤으면 이제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해병대 훈련까지 강제한 것이다.

골때너 신드롬을 보라

이런 방식으로 논란하다. 지금 세계는 다양화되고 다변화됐다. 최상위 개념인 '국가'가 정치·외교·군사·경제적 차원에서는 강력하게 작동하지만 기후·환경·문화·일상·스포츠·여가 등에서는 국가의 '강력한 그립'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 개별 도시와 자유로운 시민들의 활발한 교류와 연대가 지구 곳곳에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인구 감소·노동과 고용형태 변화 등으로 20세기의 정치·경제·사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스포츠의 범주와 그 가치 역시 급변하고 지도자와 선수라는 뼈대에 더해 스포츠와 연관된 미디어·콘텐츠·산업·경영·법률·기획 등의 직업이 확장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부산에서 열린 e스포츠계의 월드컵 '2023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을 보자. 온라인 누적 시청자수가 무려 4억명이다.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1만5천여명 관중이 모여 응원전을 벌였고 결승 티켓은 10분 만에 매진됐다. 물론 이 종목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기도 하다.

욕망과 가치 측면을 보자. 이른바 '골때너 신드롬' SBS 축구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에 의해 여자 축구동호회가 급증했고 풋살 경기장, 용품, 각종 대회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가 여자 축구 활성화를 위해 나름 노력했지만 대부분 20세기 방식이었다. 반면 '골때너'의 핵심은 축구를 하는 순간의 환희와 수많은 동료들과의 '찐한 우정'이다. 그러자 수많은 여자들이 축구화를 신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8월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올해의 양성평등문화 콘텐츠상'까지 수상했다.

더 거시적으로 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미 '올림픽 어젠다 2020'를 통해 자원 공유와 사회적 가치의 공존을 통해 스포츠가 인류가 직면한 각종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제시했다. 스포츠가 '수많은 사회관계와 결속해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며 기후·환경·분쟁·가난·혐오·차별·선수 보호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이미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그러한 활동은 올림픽 대회를 통해 확인되고 확산된다.

유독 한국만이 예외다. 기후 위거나 혐오·차별·분쟁의 극복은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지 않는다. 선수의 신체·인권·자격의 보호와 신장은 오히려 20세기 중엽으로 역행한다.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고 군사훈련 캠프에 가서 '정신 무장'하라고 강제한다. IOC로부터 제재를 받아야 할 일이다.

[안준철의 스포츠시선]

韓 스포츠,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

한국 스포츠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은 '엘리트 체육'이다.

될성부른 나무의 떡잎들에게만 투자를 해왔다. 운동하는 이와 하지 않는 이는 초등학교부터 분리된다. 운동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운동'하는 이들은 다른 세상 사람이 됐다. '운동'하는 이들에게 일반인들도 낯선 대상이다.

이러한 체계는 너무 오래됐다. 엘리트 스포츠 육성 정책은 박정희 정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의 활약이라 생각했다. 이는 '국위선양'이라는 이유로 대학 입시부터 '체육'에 대한 제도적 특혜로 나타났다.

IMF 사태로 숱한 스포츠 팀들이 해체되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래도 한국 스포츠는 엘리트 중심이었다. 당장 올림픽 무대에서의 금메달이 중요했다. 오히려 국제무대에서 한국 스포츠의 성적과 위상도 커졌다. 그만큼 엘리트 스포츠의 효과는 뚜렷했다.

하지만 환경이 변하고 있다. 인구 절벽 위기가 커지면서 운동하는 이와 운동하지 않는 이를 분리하는 것 자체에 위기가 찾아왔다. 즉, 엘리트 중심의 체육 정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 없어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결국,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엘리트 체육 중심에서 스포츠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삶 속의 스포츠, 스포츠를 통한 삶이 일상적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책적인 움직임은 환영할만하다.

최근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1차 회의에서는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학교·생활·엘리트·국제스포츠·스포츠산업 등 분야별로 정책을 담았는데, 2028년까지 국민의 일상 스포츠 참여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눈에 띈다. 운동 참여 실적을 토대로 지급되는 연 5만원 한도의 현금성 포인트 지급 대상은 올해 1만명에서 2028년 50만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있다. 생활 스포츠를 강화로 인한 저변의 확대,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골자이다.

또, 초등학교 1, 2학년의 신체 활동을 늘리기 위해 별도의 체육 교과목을 편성한다는 정책도 눈에 띈다. 미래 세대인 초등학생들의 체력 저하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체육, 스포츠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계와도 면밀하게 논의할 사안이다.

다만, 기본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여전히 스포츠, 운동은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인식 말이다. 스포츠를 통한 삶, 삶 속의 스포츠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부터 체육계와 정부 사이의 불협화음이 감지된다. 대한체육회는 민관 협동 거버넌스 방식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못마땅한 모양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당연직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민간위원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왔다. 체육계의 온전한 의사가 전달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생활체육과 통합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대한체육회는 여전히 엘리트 스포츠 강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국가대표 해병대 입소 캠프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엘리트와 생활 체육의 분리는 의미가 없다. 엘리트 스포츠를 고수하는 현실 속에서 한국 스포츠의 '갈라파고스화'만 가속화된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시민, 건강한 사회라는 패러다임이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빠른 필요는 없지만, 바뀌어야 하는 것은 맞다. 체육계로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체육계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볼빨간’ 언니들 “김연경보다 잘한 거예요”

“무릎! 무으르웁! 팔 펴고! 팔꿈치를 붙여! 팔꿈치를 펴줘!”

매주 금요일 정오를 넘긴 시간이면 서울 마포구 서강대 체육관에서는 세 가지 소리가 쉴 새 없이 번갈아 들렸다. 김윤희(56) 포항시체육회 배구단 감독이 던진 공을 수강생들이 받아서 치는 소리, 김 감독이 수강생들의 자세를 지도하며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 그리고 수강생이 친 공이 높이 올라간 뒤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텅’ 하고 튀어 오르는 소리. 때때로 웃음소리도 더해졌다. 공을 칠 차례가 된 사람이 헛손질할 때였다. 공을 빗맞힌 사람은 뒤돌아서 머쓱한 웃음을 지었다. 키 176cm인 김 감독은 농담하거나 호쾌하게 독려했다.

“스포츠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

서강대 체육관에서는 매주 금요일 낮 12시부터 약 40~50분 동안 전문 체육인과 청소노동자, 대학생이 다 함께 모여 운동하는 공간이 열린다. 문화연대 대안체육회가 2022년 11월부터 연 ‘호호체육관’ 프로젝트다. ‘모두의 운동’, 즉 성별·연령·장애·신체능력 등과 관계없이 모두가 스포츠를 즐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시작했다.

지도자 경력만 20년째인 김 감독은 아시아선수권대회(1987년), 제24회 서울올림픽(1988년)에서 여자 국가대표로 코트 위를 뒀던 전문 지도자다. 수강생은 김 감독과 연령이 비슷한 50·60대 여성으로, 서강대 청소노동자들이다. 서강대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나 교지, 여자농구 동아리 소속 대학생들도 배구수업에 참여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스포츠 인권 헌장은 “스포츠는 인간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고 규정한다. 국제사회는 일찍이 기본권으로서 스포츠권을 논의해왔지만, 여전히 국내에선 스포츠 정책이나 관련한 사회적 논의는 전문 스포츠 선수의 영역에 국한되는 경향이 강하다. 2019년 체육계 ‘미투’ 운동, 2020년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선수가 집단 가혹행위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나온 정부 대책과 논의 역시 이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문화연대는 호호체육관을 ‘운동(Exercise)으로 운동(Movement)하기’의 일환으로 기획했다. “대한민국 스포츠계에 산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사람이 온전히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스포츠를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2~2023년은 서강대에서만 운영했지만, 2024년 상반기에는 서강대에 이어 서울 서부권역의 다른 대학에서도 호호체육관을 열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참여 대학을 2개 더 늘리려 한다.

2023년 12월1일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붉은색 작업복 위로 두꺼운 패딩을 입은 수강생들이 삼삼오오 체육관에 모여들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최성은(56)씨와 이향란(59)씨는 패딩을 벗어둔 뒤 잠시 스트레칭을 했다. “저번에 벽에 대고 (연습)하러 했어.”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말했다. 이들은 각각 배구공을 들고 체육관 한쪽 벽으로 다가갔다.

한 주 전 열린 수업에서 김윤희 감독은 수업을 끝내며 당부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도착한다면, 벽에다 공을 치면서 언더핸드 토스 연습을 하고 있으라고. 이 말을 떠올린 두 사람은 무릎을 살짝 굽히고, 양쪽 팔을 앞으로 모아 쪽 편 자세를 유지하며 배구공을 벽에 대고 쳤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청소노동자들과 학생들도 각각 공을 들고 ‘벽치기’를 했다.

요가수업, 좋지만 관계 형성 어려워

수업이 시작되자 열 개 넘는 배구공이 체육관 안을 정신없이 날아다녔다. 이날 수업 참여자는 총 11명으로 청소노동자 6명, 학생이 5명이었다. 그 밖에 문화연대 활동가 1명이 수업을 보조했다. 김 감독은 이날 약 50분 동안 ‘무릎’과 ‘이마’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말했다. 언더핸드 토스를 연습할 때는 무릎 높이에서 위로 공을 쳐야 하고, 오버핸드 토스를 할 때는 이마 위쪽에서 공을 쳐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마가 여기 있죠?” 이마 위보다 낮은 위치에서 공을 친 수강생에게 김 감독이 자신의 턱 밑을 가리키며 농담했다. 웃음소리가 자주 들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젝트 이름에 ‘호호’를 붙인 활동가의 바람처럼 체육관 안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제 한국에서는 운동하는 여성이 낯설지 않다. 한때 운동은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엔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받고 갈라진 근육을 보디 프로필 사진에서 드러내는 여성, 유도나 주짓수처럼 격렬한 격투기를 배우는 여성, 풋살·농구·테니스 등 단체스포츠를 즐기는 여성이 늘고 있다. 그렇더라도 ‘중장년 여성’과 ‘배구’라는 단어의 조합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다. 문화연대가 처음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청소노동자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근육을 늘려주는 요가수업을 기획했던 이유다.

수강생들의 수업 만족도는 높았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서 운동해도 이들과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웠다. 박이현 문화연대 활동가는 “요가수업을 들으며 서로서로 조금씩 웃음을 나누긴 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긴 어려워 팀스포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한편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운동’이었으면 했다. 청소노동의 특성상 허리를 숙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몸을 위로 젖히는 운동이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가장 먼저 떠오른 운동은 배드민턴이었다. 하지만 라켓 구매 비용이 만만찮고 보관 문제가 있는데다 ‘테니스 엘보’처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팀스포츠에 가깝고 별도 준비물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가 배구가 떠올랐다.

‘받고, 올리고, 때리는’ 배구는 협력이 중요한 스포츠다. 상대편 서브를 받아내 우리 편 공격수가 칠 수 있게 하늘로 띄운다. 공격수는 그 공을 때려서 상대편 진영으로 보낸다. 규칙은 간단하다. 한 팀의 선수들은 최대 세 번까지 공을 칠 수 있다. 그 안에 상대편 진영으로 공을 넘겨야 한다. 하지만 한 선수가 공을 두 번 이상 치는 것은 반칙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축구·야구·농구 등 다른 팀스포츠 이상으로 선수들의 협력이 중요하다.

공을 맞혔을 때 성취감, 어울려 하는 즐거움

단체 안에서조차 과연 수강생이 모일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박이현 활동가는 “중년 여성이 힘든 스포츠를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가 먼저 (그분들에게) 선을 긋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그렇게 말한 박 활동가도 ‘안 모이면 다른 운동을 하자’는 마음이었다. 2023년 1학기(1기), 2학기(2기)에 각각 청소노동자 약 10명이 배구수업을 신청했고, 대학생 예닐곱 명도 함께 수업을 들었다.

“뭘랄까,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즐겁고 몸을 쓰는 운동을 하니깐 움츠러드는 마음에 자신감도 붙어서 좀더 사람이 쾌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최성은씨 얼굴은 배구수업을 듣는 내내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2023년 2학기부터 참여했다. 1학기 수업 때 동료 이향란씨를 따라 몇 차례 구경하러 왔다. “그렇게 재미있는 것 같진 않아 보였다.” 팔목이 약해서 공을 치는 것이 무리일 듯했다. 하지만 2학기 수업 수강생을 모집할 때 이씨가 ‘신청자가 적어서 재미있는 수업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애태우는 바람에, 인원수를 채워주기 위해 신청했다. 처음엔 몸이 아팠다. 팔목에 멍도 들었다. “두 번째 수업은 안 가려다가 미안해서 갔는데, 그렇게 또 가고 가다보니까 재미를 느끼게 됐다. 뛰면서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진다.”(최성은씨)

영하의 날씨에도 코트 위를 뛰어다녀서 볼에 열은 홍조가 가시지 않던 전창현(62)씨는 “처음엔 손이 많이 아프고 제대로 맞히지 못했는데 지금은 잘되니까 너무 재밌다. 다른 엄마들도 재밌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학기에 수업을 들었던 전씨는 이번 수업의 우등생이다. 박미숙(58)씨도 “선생님이 요구하는 대로 공을 잘 맞힐 때 느끼는 성취감도 크고, 여럿이 어울려서 하는 운동의 즐거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 명 모두 “배구수업을 듣고 나면 지치기보다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주변 동료들에게 배구를 전파하는 전씨는 2024년 상반기에 배구수업이 열리면 그때도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흥미’와 ‘부상’은 김윤희 감독이 호호체육관에서 배구수업을 진행하며 가장 신경 쓰는 요소다. 중장년층의 유연성과 순발력은 젊은층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이른 아침부터 일하고 왔기 때문에 몸에 쌓인 피로도 고려해야 한다. 김 감독은 “최소한 부상 염려가 없도록 운동 방식을 생각해서 수업을 준비한다”며 “오늘 그래도 몸이 좀 움직이긴 했어”라는 느낌으로, 공이 내 의지에 따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의 재미를 느끼게 하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정말 뜻밖에도 배구를 좋아해주시고, 작은 기쁨들이 중간중간 샘솟아가는 걸 보면 나도 기분이 좋다”며 “내게도 이 수업은 재미있고 새로운 도전이어서 오히려 에너지를 받아간다”고 했다. 언젠가 지도자를 은퇴하면 전문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단 몇 번이라도 배구를 가르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오던 터였다. 그는 호호체육관 수업을 계기로 “우리 일하는 여성들, 혹은 집에만 계셨던 분들에게 내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다면 더없는 즐거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

“김연경보다 잘한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날 수업은 서브 연습과 미니게임으로 마무리됐다. 키 160cm가 채 안 되는 청소노동자들이 때린 공은 때때로 네트를 넘기지 못하기도 했다. 넘어갈 공은 소리부터 달랐다. 제대로 친 공은 ‘탕’ 하는 소리가 나서 포물선을 높게 그리며 네트를 넘어갔다. 옆에서 박이현 활동가가 “나이스!”라고 추임새를 넣었다. 김 감독은 “이 키에 이 정도면 김연경보다 잘한 거야. 김연경보다 잘한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라고 말했다. 수업이 끝나고 다시 걸음을 챙겨 입고 나가는 수강생들의 얼굴이 만족스러워 보였다.

초등 1·2 체육 독립 편성... '국민 운동량' 늘린다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 교과 과정에서 '체육'을 독립 편성하는 등 각급 학교에서 스포츠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체육인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스포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스포츠정책위는 민관 합동 조직으로 개편됐으며 민간위원장은 이예리사 전 태릉선수촌장, 민간위원은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등이 맡았다.

기본계획은 학교·생활·엘리트·국제스포츠·스포츠산업 등 분야별 정책을 담았다. 2028년까지 국민의 일상 스포츠 참여율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스포츠 강국 주요 7개국(G7) 진입 등을 목표로 삼았다.

일상 스포츠 활동 지원이 강화된다. 운동 참여 실적을 토대로 한 연 5만원 한도의 현금성 포인트 지급 대상은 올해 1만명에서 2028년 50만명으로 늘어난다.

어린이와 직장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도 확충한다.

학교 스포츠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신체 활동을 늘리고 초등학교에서 '체육' 과목을 독립 편성할 방침이다. 이선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조만간 교육부 장관 명의로 국가교육위원회에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 제안을 할 것"이라며 "국교위 심의를 거쳐 2028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을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2025년부터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은 약 30% 늘어난다. 또한 1학교·1종목 보급을 확대하고 방과후 스포츠 활동을 강화한다. 학교 운동부의 창단 초기 비용을 지원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선수에 대한 장학 지원도 규모를 키운다.

엘리트 스포츠 역량도 강화해나간다. 유소년 스포츠 복합시설 등 우수한 선수를 체계적으로 키워내는 훈련시설을 구축하는 등 국가대표 육성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최근 주요 국제대회에서 부진한 구기 종목에서는 유망주 국외 훈련, 지도자 선진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국가대표 등 체육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촘촘히 한다.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체육인 복지 사업을 전담하는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며 체육인 공제 사업, 생활안정자금 지원, 상해 의료비 지원을 새로 시행한다. 체육계 인권 신장을 위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골프 대중화를 도모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골프장 부족에 따른 과도한 이용료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유희용지를 활용한 공공형 골프장을 2027년까지 30개 만든다.

민간골프장 건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대중형 골프장 건설 대출 한도를 늘린다.

주간 스포츠 소식

故 오창석 전 국가대표 마라톤 감독,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28486635842456&mediaCodeNo=257&OutLnkChk=Y>

밀양시, 내년 제63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개최 일정 최종 확정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26_0002570666&cID=10812&pID=10800

수원시 초·중학교 5곳 체육관 개방 협약

<https://news.tf.co.kr/read/national/2063742.htm>

전북체육회, 체육기념관 조성 기원 유물 기증 잇따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0535&ref=A>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임금 오를까? [경기일보 보도, 그 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1219580277>

경기도체육회, 동계 이벤트 '설래(雪來)는 스키교실' 진행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75828>

경상북도체육회 '2023 청소년스포츠한마당탁구대회' 성료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0862>

'생활체육 적극 참여 노인'...의료비 절감 효과 최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9195&ref=A>

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 스포츠기업 지원사업 성공적으로 이끌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2513580003024?did=NA>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